

우리 시대, 우리 문화를 치료한다.

현재 한국 사회는 문화적 외상(Cultural trauma)의 병리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죽음교육연구센터는 세계의 석학을 초대하여 우리 시대 우리문화를 진단하고 트라우마의 근본 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인사말: 신창호(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장, 교육학과 교수)

	일시 및 장소	주제	발표자
I	9월 14일(금) 오후 3시 - 5시/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323호	“인문정신과 경청대화” 배타적 주장(트라우마)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?	조성택 (고려대 철학과 교수)
II	9월 21일(금) 오후 3시 - 5시/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323호	“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은” 자살을 바라보는 편견과 독단이 부른 2차 트라우마	한창수 (중앙자살예방센터장· 고려대 의대 교수)
III	9월 28일(금) 오후 3시 - 5시/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323호	“기억의 공간 ; 반복과 재현” 인지언어를 통한 트라우마치료	남기춘 (고려대 심리학과 교수)
IV	10월 5일(금) 오후 3시 - 5시/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323호	“공감과 이해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” 공감과 판단중지, 인과적 자각을 통한 트라우마치료	임병식 (교육문제연구소 죽음교육연구센터장)

| 신청 | <https://goo.gl/forms/QuYNgy4EGGK5MKgC3> (40명 선착순 마감)

| 참가비 | 무료

| 주관 및 주최 |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죽음교육연구센터

| 문의 | 02-3290-1638



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

Korea University
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